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운동능력믿음, 학업열의 및 자기핸디캡의 관계

김승용¹, 송기현^{2*}

¹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교수

²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강사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Exercise Ability Beliefs, Academic engagement and Self-Handicap in Physical Education Class

Seung-Yong Kim¹, Ki-Hyun Song^{2*}

¹Professor,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²Lecturer, Graduate School of Sports Industry, Kookm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운동능력믿음과 학업열의 및 자기핸디캡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4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437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전체연구 단위의 적합도 검증을 확인한 후 가설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운동능력믿음의 증가된 믿음은 학업열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고정된 믿음은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가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고정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학업열의는 자기핸디캡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체육수업, 학생, 운동능력믿음, 학업열의, 자기핸디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exercise ability beliefs, academic engagement and self-handicap in physical education clas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437 copies of questionnaires as final valid samples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argeting middle school students at 4 schools in metropolitan area. For data processing, this study confirmed the goodness of fit test of the whole model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d then did hypothesis testing;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d belief of exercise ability beliefs was shown to have a static effect on the academic engagement, and a fixed belief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ademic engagement. Second, the increased belief was shown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elf-handicap, while the fixed belief had a static and significant effect on self-handicap. Third, the students' academic engagement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self-handicap.

Key Words : P.E Class, Students', Exercise Ability Beliefs, Academic Engagement, Self-Handicap

*Corresponding Author : Ki-Hyun Song(vtr886@naver.com)

Received February 26, 2020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April 1,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1. 서론

과제행동에서 노력증가와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은 능동적인 학습행동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게 관여된다. 행동구현에서 능력에 관한 자신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면 발달 가능성을 정지시켜 활동범위와 상황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1]. 체육수업은 특히 신체활동을 통해 과제수행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과제 수행 장면이 교사나 동료학생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수행능력에 관한 타인의 평가정보는 능력과 무능에 관련되어 과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Dweck[2]은 학업성취의 목표행동을 설명하는 암목적 이론에 기초하여 학습능력을 증가된 믿음과 고정된 믿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능력믿음은 고정된 믿음과 증가된 믿음의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귀인양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정된 믿음은 개인의 능력은 변화될 수 없는 특성으로 내적, 안정적, 통제 불가능으로 귀인 하지만 증가된 믿음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능력이 증진되는 계속적이고, 확장되는 관점으로 내적, 불안정적, 통제가능에 귀인 한다[3].

암목적 이론은 성취상황에서 수행과 학습의 목표추구 유형을 채택하도록 한다[4,5]. 이러한 목표성향의 채택은 실패확률이 적은 과제를 통해 성공확신이 과제를 선택하여 타인으로부터의 능력 인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 목표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학습기회 및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는 숙달목표의 선택을 지향한다[6]. 고정된 믿음과 증가된 믿음은 각각 수행목표와 학습목표 설정의 경향성을 나타냄으로서 성취행동에 관여하게 되는데[2] 개인의 운동능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면 사회적 걱정이 증가됨으로서 체육수업의 소외를 높게 된다[7]. 특히 유능성의 정보와 관련된 위협지각은 불안을 가중시켜 방어기제를 사용하도록 이끈다[8].

이와 관련된 학습상황에서 과제실패 예측의 심리적 손상은 부정적 대처 행위인 자기핸디캡 전략을 높이기 때문에[9]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학습지연 행동의 자기핸디캡을 증가시킨다[10]. 자기핸디캡 전략은 불성실한 수행이나 컨디션 난조 등의 이유를 들어 실패에 따른 타인으로부터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저평가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11]. 그러나 예상치 못한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으로 귀인 하여 불명확한 해석을 사용하게 된다[9].

그러나 학습상황에서의 능력믿음과 자기핸디캡 연구들은 암목적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증가된 믿음이 자기핸디캡에 정적, 고정된 믿음이 자기핸디캡에 부적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거나[9] 고정된 운동능력믿음과 달리 증가된 운동능력믿음이 자기핸디캡을 예언하지 못하고 있다[12]. 또한 두 변인 간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믿음과 학습상황에서 학습행동에 관한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습에 필요한 효과적인 시간 관리와 노력을 조절하여 학업에 몰두,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열의가 매우 필요하다[13]. 학습열의는 동기적 변인들과 학습행동 간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으로 간주되며[14], 학습 환경이 유능성 지각을 독려하는 경우, 학습행동을 활성화하여 학습열의를 높이는데 관여하게 된다[15]. 아울러 열의는 학습에 필요한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극대화된 집중상태를 촉발하여[16] 높은 흥미와 낮은 불안의 행동적 특징을 변별해 주기 때문에[6] 학업성취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17,18]. Skinner et al.[19]은 개인의 역량에 대한 의심의 증가되면 도전 상황에 대한 포기경향이 나타남으로서 수동적이고, 불안한 행동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능력믿음이 학습목표에서 숙달목표(증가된 믿음)와 회피적인 수행목표(고정된 믿음)를 예측하기 때문에[20] 개인의 의지와 같은 열의가 학습활동에 반영되었을 때 자기핸디캡의 경향성을 변화시킬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전술한 바와 같이 운동능력믿음이 학업성취에 주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운동능력믿음이 학업성취에 관여되는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능력믿음과 자기핸디캡의 사이에서 학습열의의 역할을 분석하여 학습행동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4곳 500명의 중학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제작한 설문조사를 통해 무응답 또는 불성실한 응답 63명의 자료를 제외한 43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표집은 편의표본추출법으로서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한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 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ssortment		Peoples(N)	Percent(%)
Gender	Male	211	48.3
	Female	226	51.7
Grade	1	116	26.5
	2	155	35.5
	3	166	38.0

2.2 연구도구

먼저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운동능력믿음을 평가하기 위해 암묵적 이론을 근거로 Biddle et al.[21]이 체육과 스포츠 상황에 적용시켜 개발한 운동능력믿음 검사지를 기초로 국내에서 Park and Kim[22]이 제작하여 타당도 검사를 마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목적에 맞게 수정과 보완을 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의 구성요인은 증가된 믿음과 고정된 믿음인 2요인, 12문항이며 5점 리커트형 척도의 응답형태로 측정하였다.

학생들에게서 학업열의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는 Lee and Lee[23]가 개발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Korea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 KAEI)에 근거하여 Lee and cho[24]가 체육수업에서 적용했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헌신, 효능감, 몰두, 그리고 활기 등을 묻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형태로 구성하였다.

체육수업에서 관찰되는 자기헨디캡 행동은 국내 중등학교 체육수업에서 Hwang and Park[25]이 사용하고, 자기헨디캡 척도에 근거하여 최근 중학교 체육수업에 맞게 Kim and Song[26]이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단일요인 7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형태로 구성하였다.

2.3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책임자는 직접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4곳에 방문하여 체육부장 및

체육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의를 얻은 후에는 각 학교의 수업일정에 맞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에는 먼저 설문작성요령 및 학생 개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사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작성 시간은 개인에 따라 10분 내외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되면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이를 통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자료 63부를 제외한 총 437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최대우도 방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 TLI, CFI, RMSEA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모든 검증에서 유의수준은 $\alpha=.05$ 에서 이루어졌다.

3. 결과

3.1 정규성 검증 및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에서 설정했던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고자 우선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임계치에 대해서는 West, Finch and Curran[27]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들은 왜도에서 ± 2 , 첨도에서는 ± 4 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왜도는 $-0.32 \sim 0.59$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첨도는 $-0.94 \sim -0.48$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West et al.[27]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M	SD	skewness	kurtosis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1. incremental belief	4.20	.66	-0.32	-0.72	1			
2. fixed belief	1.63	.59	.59	-0.48	-.59**	1		
3. academic engagement	4.03	.68	-0.12	-0.94	.51**	-.37**	1	
4. self-handicapping	1.93	.70	.26	-0.69	-.40**	.51**	-.42**	1

**p<.01

다음으로는 개별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개의 측정변인들 간 상관성이 .80 이하로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측정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이 낮음으로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부분에서는 적당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측정모델 평가

이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먼저 최대우도방식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에 따른 결과는 $\chi^2=852.513$, $df=289$, $Q=2.950$, $TLI=.904$, $CFI=.914$, $RMSEA=.077$ 로 전반적인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Table 3 적합도 지수와 관련한 기준은 Hair et al.[28]과 Hong[29]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χ^2 ,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측정모델 평가 결과 적합한 모형임이 확인 되었다. 또한 각 관측변수에서 표준화 적재치는 .584에서 .904까지 나타났고, 변인들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 값을 분석하였다. 이에 개념 신뢰도는 .923에서 .961까지 나타나 기준치(.7 이상)를 충족시켰고, AVE값도 .633에서 .760까지 나타남으로서 기준치(.5 이상)를 충족시켜 집중타당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하였다.

Table 3. Model fit

	TL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904	.914	.077
standard	.9 more	.9 more	.08 less

Table 5. Structural model path

path	estimate	S.E.	C.R.	p	assessment
incremental belief → academic engagement	.448	.073	6.113	***	accept
fixed belief → academic engagement	-.093	.072	-1.294	.196	reject
incremental belief → self-handicapping	.010	.090	.113	.910	reject
fixed belief → self-handicapping	.487	.091	5.360	***	accept
academic engagement → self-handicapping	-.289	.076	-3.805	***	accept

***p<.001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CR	AVE	Cronbach's α
incremental belief	.940	.760	.900
fixed belief	.933	.703	.885
academic engagement	.961	.753	.944
self-handicapping	.923	.633	.912

3.3 가설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평가 결과, 적합도 및 타당도가 충족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chi^2=825.513$, $df=289$, $Q=2.950$, $TLI=.904$, $CFI=.914$, $RMSEA=.077$ 로 전반적인 적합도는 기준치에 충족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구조모형이 적합하므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각 경로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운동능력민음의 증가된 믿음은 학업열의에 정적으로 자기핸디캡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정된 믿음은 학업열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고, 자기핸디캡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업열의는 자기핸디캡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Table 5 참고)

4. 논의

체육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운동능력민음과 학업열의 및 자기핸디캡의 관계 분석을 위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운동능력민음의 증가된 믿음은 학습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된 믿음은 학습열의에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에 대한 몰입경험의 유발은 최적의 도전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데 개인의 능력수준과 기능이 과제요구와

일치될 때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집중을 통해 몰입을 경험하지만 과제수준이 낮은 경우, 지루함을 유발하여 주의 집중과 적극적인 과제행동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도전과제가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능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켜 근심과 불안을 가중시킨다[1]. 개인의 능력믿음이 높을수록 성공-기쁨 경험이 증가될 수 있지만 능력믿음이 낮을수록 실패-좌절 경험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제수준이 도전의식을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 능력과 무관하게 관여되어 학습열의를 저해할 수 있다.

Lee et al.[15]은 유능성이 지각되는 학습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Song and Kim[30]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증가된 능력믿음이 열정을 높이기 때문에 노력을 통한 능력향상의 기대는 목표추구행동으로 유인하여 진취적인 학습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운동기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확고한 신념이 긍정적인 성취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에 대한 증가된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부여하는 칭찬이나 과제수행 관련 긍정적 피드백으로부터 기인될 수 있으므로 [31]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도전을 자극하고, 노력을 통해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제 프로그램을 강구 및 제시를 통해 학습열의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열의와 자기핸디캡의 관계에서 학습열의는 자기핸디캡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의를 갖는 행위는 노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미래 결과들에 대한 낙관성을 유지시킨다. 하지만 열의가 낮은 경우 낮은 자기통제를 발생시켜 부정적 결과의 추경과 소극적인 행동을 일으킨다 [6]. 따라서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노력 발휘와 긍정적인 정서가 수반되지만 열의에 이탈되면 부정적인 정서 경험과 함께 소극적인 행동 표현을 높일 수 있다[32].

Kim 등[18]은 학습열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움요청과 같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서 자기핸디캡을 감소시켜 성취행동을 높인다고 하였다. 열의는 에너지의 높은 활용과 정신적 탄력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도움요청[33]과 같은 성공적인 학습행동을 지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학습행동의 핸디캡을 타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기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고 과제수행에 대한 만족을 기할 수 있도록 교사의 칭찬과 다양한 수행방법들을 통해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면 자기회피적인 학습행동을 지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운동능력믿음과 자기핸디캡의 관계에서 증가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암묵적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9,34]보다는 증가된 믿음이 자기핸디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정된 믿음만이 자기핸디캡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12]를 지지하고 있다. Kim and Im[35]은 자기핸디캡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타인비교에서 촉발되는 열등감과 수행저조, 개인의 능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하였고, Nam[36]은 학생들의 자기핸디캡은 교과내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촉진된다고 하였다. 이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낮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나타내는 운동기능에 대한 교사반응이 부정적일 때 과제수행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37] 과제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는 경우 학생들은 자기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기핸디캡이 높아질 수 있다[26]. 특히 경쟁위주의 수업방식은 동료들의 비난과 실패수행에 따른 창피함에 의해 개인의 운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역기능적인 학습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과제선정에 있어서 과제수준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학습전략과 과제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운동능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도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운동능력믿음과 학습열의 및 자기핸디캡의 관계를 분석하여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관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운동능력 믿음의 증가된 믿음은 학습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된 믿음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열의는 자기핸디캡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동능력 믿음의 증가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주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정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체육현장에서 운동수행 역량은 과제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동기량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면 부정적인 학습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행동 결과들에 대하여 교사는 대처자세와 전략들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학습전략을 극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스스로 운동기량을 낮게 평가하여 회피적인 학습수행 전략을 사용되는 경우 학습활동의 개인차를 수용하는 과제를 통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과제 방안과 긍정적인 정서전달, 과제관련 피드백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습행동에서 운동능력이 간접되는 효과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운동능력믿음과 학습열의, 자기핸디캡의 제한적인 관계 분석으로 인해 학습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과제수행에서 회피 또는 노력투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서는 운동능력믿음의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보와 피드백, 개인의 정서에 토대하여 운동능력믿음의 발생과 후속행동의 영향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O. J. Kim, H. S. Min & J. Y. Shim. (2010).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human motivation*. Seoul: Shinjeong.
- [2] C. S. Dweck.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DOI : 10.1037/2F0003-066X.41.10.1040
- [3] C. S. Dweck & E. L. Leggett.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DOI : 10.1037/2F0033-295X.95.2.256
- [4] A. J. Elliot & M. Church.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8-232.
- [5] J. M. Harackiewicz, K. E. Barron, S. M. Carter, A. T. Lehto & A. J. Elliot. (1997).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achievement goals in the college classroom: Maintaining interest and making the gra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284-1295. DOI : 10.1037/2F0022-3514.73.6.1284
- [6] B. K. Chung, S. Y. Hyun & B. S. Yoon. (2003).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Seoul: Pakhaksa.
- [7] C. S. Lee, S. W. Nam & J. K. Yeo. (2011). The relationships of subjective recognition of athletic ability on social concerns and alienation in physical education clas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6(2), 91-104.
- [8] A. Freud. (1946). *The ego and mechanisms of defens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DOI : 10.4324/9780429481550
- [9] J. Hwang. (2011). Self-handicapping in Physical Education: Implicit Theory of Ability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1), 57-69.
- [10] E. E. Jones & S. Berglas. (1978). Control of attributions about the self through self-handicapping strategies: The appeal of alcohol and the role of under achiev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200-206. DOI : 10.1177/014616727800400205
- [11] D. W. Han & J. Hwang. (2011). Implicit Theory of Ability, Self-Handicapping and Counterfactual Thinking on Athletes i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2(3), 99-112.
- [12] K. H. Song & J. Y. Huh. (2012). Construct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feedback, ability belief, and self-handicapping of students in P.E clas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1(4), 369-379.
- [13] J. H. Choi. (2016).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management, engagement,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9(1), 1-19.
- [14] J. Y. Cho & M. S. Kim. (2013). Gender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4), 477-497.
- [15] K. G. Lee, S. K. Lee & I. S. Nam. (2017). The Effect of Perceived Learning Environment on Self-regulation Strategies and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2), 709-728.
- [16] W. B. Schaufeli, I. M. Martez, A. Marques Pinto, M. Salanova & A. B. Bakker.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DOI : 10.1177/0022022102033005003
- [17] J. Y. Lee & S. M. Lee.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131-147.
- [18] S. Y. Kim, H. M. Lim & K. H. Song. (2019).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eachers' Attitudes toward Students and Academic Engagement and Task-Solving Behavior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3),

- 249-256.
DOI : 10.15207/JKCS.2019.10.3.249
- [19] E. A. Skinner, M. J. Zimmer-Gembeck & J. P. Connell. (1998).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development of perceived control.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3, Serial number 254.
DOI : 10.2307/1166220
- [20] J. G. Park. (2010). Relationships between sport ability beliefs, 2×2 achievement goals, and motivational regulation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and grad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9(1), 113-126.
- [21] S. J. H. Biddle, C. K. J. Wang, N. L. D. Chatzisarantis & C. M. Spray. (2003). Motivation for physical activity in young people: Entity and incremental beliefs about athletic ability. *Journal of Sports Sciences*, 21, 973-989.
DOI : 10.1080/02640410310001641377
- [22] J. G. Park & K. H. Kim.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port Ability Belief, Achievement Goal, and Behavioral Regulations among Student-Athletes: Perspective of Three Different Theories of Motivation.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1(2), 101-129.
- [23] J. Y. Lee & S. M. Lee.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KAEI). *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131-147.
- [24] S. S. Lee & H. S. Cho. (2015). The effec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on the academic engagement of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4(5), 1079-1090.
- [25] O. C. Hwang & J. G. Park. (2010). Relations of perceived competence and fear of failure with approach-avoidance goals and self-handicapping during task-based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9(5), 93-108.
- [26] S. Y. Kim & K. H. Song. (2017).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teacher-student interactions, self-monitoring, asking help and self-handicapping in physical education clas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6), 213-225.
DOI : 10.23949/kjpe.2017.11.56.6.15
- [27] S. G. West, J. F. Finch & P. J. Curran.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28] J. F. Hair, B. Black, B. Babin, R. E. Anderson & R. L.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London: Prentice-Hall.
- [29] S. H. Hong.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30] K. H. Song & S. Y.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Passion on Relations between Adolescent Athletes Sport Ability Beliefs and Athletic Burnout.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7(6), 315-327
- [31] R. W. Lent & F. G. Lopez. (2002). Cognitive ties that bind: A tripartite view of efficacy beliefs in growth-promo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 256-286.
DOI : 10.1521/jscp.21.3.256.22535
- [32] B. C. Patrick, E. A. Skinner & J. P. Connell. (1993). What motivates children's behavior and emotion? Joint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autonomy in the academic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781-791.
DOI : 10.1037/0022-3514.65.4.781
- [33] S. Larose, D. U. Robertson, R. Roy & F. Legault. (1998). Nonintellectual learning factors as determinants for success in colleg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9, 275-297.
DOI : 10.1023/A:1018776917403
- [34] Y. Ommundsen. (2001). Self-handicapping strategie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influence of implicit theories of the nature of ability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3), 139-156.
DOI : 10.1016/S1469-0292(00)00019-4
- [35] J. S. Kim & S. Y. Im. (2019). Exploring triggers of self-handicapping in youth Football player. *Sport Science*, 37(1), 25-37.
- [36] I. S. Nam. (2018). The Effect of Perceived Teacher-Trust on Subject Interest and Self-handicapp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4), 817-834.
DOI : 10.22251/jlcci.2018.18.4.817
- [37] B. Evans. (2006). 'I'd feel ashamed': Girls' bodies and sports participation. *Gender, Place and Culture*, 13(5), 547-561.
DOI : 10.1080/09663690600858952

김 승 용 (Seung-Yong Kim)

[상학]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 (체육학사)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 E-Mail : dragonkim@kyonggi.ac.kr

송 기 현(Ki-Hyun Song)

[초록]



- 2006년 8월 :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사회체육)
- 2009년 2월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학,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E-Mail : vtr886@naver.com